08-26 (통권 204호)
2008.07.04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대
- 국내 2008 전반기 무역수지 적자

경영 노트
- 글로벌 경영트렌드 5: 시대 흐름 꿰뚫는 혜안이 기업성패 좌우

사회 트렌드
- 그린 러시

저널 브리프
- 낡은 규칙 깨뜨리기: 리더의 과단성이 희망 만든다

洗心錄
- 생각하는 리더는 패러독스를 꿈꾼다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대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가 진행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 가능성이 제기됨**

- 원유 및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 주택시장 침체는 신용위기를 거쳐 세계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증대
- 유로존의 6월 인플레이션도 4%(연율)로 8년래 최고 수치를 보임으로써 3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연 4.25%로 25bp 인상하였음

■ **한편, IMF(1일, 현지시간)는 "선진국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고유가로 인한 고통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발표하였음**

□ 국내 2008년 전반기 무역수지 적자

■ **무역수지(2008년 전반기)는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세로 57.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수출은 고유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침체 등 불리한 대외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호조와 신흥개도국 수출 급증으로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
- 이러한 수출은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한 2,140.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 상반기 수입은 원유가격 급등 등 에너지와 철강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한 2,197.9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월별 무역수지는 2007년 12월 이후 6개월 만인 5월에 흑자로 반전된 이후, 6월 중 다시 2.8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글로벌 경영트렌드 5: 시대 흐름 꿰뚫는 혜안이 기업성패 좌우*

■ **'세계화 3.0시대'**와 함께 한 오늘의 초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급박한 시대 흐름을 꿰뚫는 혜안이 매우 필요함**

- 원가의 최소화를 통한 이익추구의 시대는 저물고 그 자리에 브랜드·디자인·지식정보·인재 등 무형자산에 의한 차별화 우위시대가 도래함
- 또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통해 경제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반환해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음

■ **새롭게 떠오르는 경영트렌드 5는 초 경쟁,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 그린경영, 무형자산경영, 재무 위험관리경영 등임**

<글로벌 경영트렌드 5>

경영트렌드 5	주요내용
초 경쟁	초경쟁시대에 있어 생존을 위한 과제는 '얼마나 빠르게(속도의 문제)'와 '얼마나 남과 다르게(혁신의 문제)'가 화두가 됨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초기비용관리(Start-up cost), 속도(Speed), 규모(Scale), 사후관리(Support) 등이 핵심 성공요인임
그린경영	'그린경영'이란 단순한 이익창출을 넘어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임
무형자산경영	'무형자산'이란 브랜드·기술·인재·지식·조직문화 등을 의미하며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갈수록 기업의 무형자산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임
재무 위험관리 경영	기업경영에서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처할 준비가 있어야만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음

■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은 혁신을 위한 환경과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며 수익성을 감안해야 함**

- 기업은 조직의 역량, 문화, 시스템, 리더십 및 관리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야 함
-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혁신을 추진할 때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 <매경이코노미, 2008.07.09>를 요약, 정리한 것임
**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으로서 기업전략에 있어서도 '국내외'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초경쟁'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

□ 그린 러시

■ **풍력과 태양열 같은 청정 대체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러시가 지난 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그린에너지에 대한 투자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유엔이 밝힘**

- 아킴 스타이너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차장은 "1800년대에 금을 캐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등으로 수천 명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청정에너지를 향한 '골드 러시'가 세계 모든 곳에서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
- 특히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리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벤처캐피털의 주된 투자처로 청정에너지 등 '그린테크'가 각광받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세기는 골드러시, 20세기는 오일러시, 21세기는 그린러시라고 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2007년을 클린 에너지 산업 투자의 원년이라고 표현**

- 지난 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1,480억 달러에 달해 2006년의 926억 달러에 비해 60% 증가했음(2005년 신규투자는 585억 달러)
- 2012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인 4,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20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기후 변화에 대해 커지는 우려와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의 지속 등이 청정에너지 투자의 증가를 이끔

■ **2007년 클린에너지 투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마켓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클린에너지 투자는 미국(560억 달러), 영국(190억), 독일(150억), 이스라엘(140억), 브라질(120억), 인도(90억), 프랑스(70억)의 순이었는데, 인도의 높은 투자 규모가 주목됨
-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중국도 최근 들어 클린 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낡은 규칙 깨뜨리기: 리더의 과단성이 희망 만든다*

■ **규칙은 조직 관리의 필요한 수단으로서, 시간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규칙도 끊임없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조직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 뒤 새 규칙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규칙은 향후 업무활동의 이정표와 신호등의 역할을 함
- 그런데,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규칙도 달라져야 하므로 시대착오적 규칙을 과감히 없애야만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함

■ **낡은 규칙을 깨뜨리는 과감한 리더십으로 국가와 조직의 희망을 이끈 사례는 다음과 같음**

<낡은 규칙을 깨뜨리는 과감한 리더십 사례>

과감한 리더	주요내용
중국 당나라 문종	역대 황제가 관람한 씨름행사가 황제의 제사 참여로 무산될 상황에 봉착하자, 문종은 자신이 없어도 씨름 경기를 진행하게 하고 대신 상금만 전달함
조선조 중종	형조판서가 부족한 옥사를 늘리자고 중종에게 간청하자, 중종은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판서에게 '판서를 바꾸는 게 낫지 옥을 더 짓는단 말이냐'하며 판서를 교체 임명함
사다트(이집트 대통령) & 베긴(이스라엘총리)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 국가가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오랜 규칙을 과감하게 깨뜨려 '중동평화가 영원히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
스티브 잡스 (애플사 CEO)	기존의 틀을 무참히 깨는 창의력으로 아이팟이라는 디지털 음악기기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하여 디지털 음악시장을 석권
샘 월턴 (월마트 창업자)	전통적인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IT기술을 앞서서 활용하고, EDLP(Every Day Low Price)전략을 추진하여 성공

■ **낡은 규칙을 타파하는 과감한 리더의 육성을 위해 기업은 실패포용의 기업문화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독선이나 무모는 삼가 해야 함**

-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오늘 기업은 과감한 창의적 리더가 더 필요하며 이러한 리더의 육성을 위해 기업은 실패포용과 창의적 문화가 필요함
- 다만, 과도한 독선이나 편집증적인 리더십은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과단성도 적절한 정도여야 함

* 이 글은 『이코노미스트』(2008.06.2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생각하는 리더는 패러독스를 꿈꾼다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기대치도 가져야 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하며,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강력한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조직원들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독려하기도 하면서 일사불란한 조직 운영도 해야 한다. 이러한 면들을 갖추기 위해 리더들은 인간의 조직이 지닌 복잡성과 패러독스적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패러독스란 무엇인가? 서로 상반되어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객과의 관계와 경쟁사 벤치마킹에서도 필수적이다. 루먼 컨설턴트 인터내셔널(LSI)의 회장 겸 CEO, 리더십과 조직개발 분야의 권위자인 루카스(James R. Lucas)는 기업 경영과 조직운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패러독스 리더십과 전략 패러독스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각각에 대한 5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Broaden the vision and narrow the focus』).

<패러독스 리더십>

1. 낙관주의를 확산시키면서 다루기 힘든 진실도 알려라
2. 진실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라
3. 위험은 없애되 더한 위험을 감수해라
4. 결과에 집중하되 결과를 무시해라
5. 머리로 리드하되 가슴으로 이끌어라

<전략 패러독스>

1. 고객과 관계를 돈독히 하되 고객들을 무시해라
2.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라
3. 비용을 줄이면서 지출은 증가시켜라
4.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5. 일관되게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바꿔라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악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고 악한 점만 말한다."

- 공자(BC 551~ BC 479) : 중국의 사상가